國境沿岸의 傳道行脚記

金 泰 治

◇ ◇

小生이 京城의 布敎師로 赴任한後로부터 南西北鮮의 傳道거름을 앗기지아니하얏으나 國境沿岸에는 한번도가본 일이업습니다 平壤誌上을 볼것가트면다른 宗敎의 敎役者들은 재양 夏期가되면 國境을 넘어서 或은 滿洲 或은 北滿洲까지도 敎化網을 펴기爲하야 도라단인다는 報道가 자주잇는데 우리佛敎에서는 布敎傳道方面에 힘을쓰는분이 만이잇으나 國境은커녕 地方안에서라도 巡廻傳道를 計劃하는분이 적습니다 이것은 熱誠이 적다는것보다 機關이 그만큼 버러져잇지 못한까닭이엿지요 小生은 이에늣긴바가잇서서 항상 佛敎를 理解치 못하는 地方에가서 傳道를 하얏으면하는 생각을하고 國境地方에 布敎의거름을 斷行코저한바가 자못만앗읍니다 그러나 오륙 주저하든바는 旅費의 捻出策路를근심하엿을분임니다

◇ ◇

어려하든차에 鎭城佛敎婦人會主催로 夏期佛敎講座를 연다하면서 則於허와 달나는 招請이 잇엿읍니다 그때서 보내준 旅費를 바다들고 七月十日밤에 滿浦行車를타고 北鮮行客의한사람이되엿읍니다 그런데 失禮의말것지다는 經驗이적은 婦人비의일이라 보내준旅費만으로도 三四回이 不足하엿고 나亦是 鎭城이란말만듯고 떠나래라 所持金을 넉수히 가지고 나스지못한까닭으로 車中客이 되여서 所餘金을 헤아려보니 一金六拾五錢也에 不過합니다 車賃에 안저서 몸이당긴대로 끌니가기는하나 滿鮮旅行案內冊으로부터 二十八九時間을 가야만 鎭城이란 곳을 到着케됨을 깨다른 나로서는 如干한狼狽가아님니다 그러나 가다가말고 뒤여 나릴수도 업는事情이라 그대로 가기로하엿읍니다 그러나 마침 中車에서 공부하는 安君이 釋王寺까지 간다고하며 車中에올랏음으로 이런이 얘기도하고 저런이얘기도 하다가 나의傳道旅行의이얘기까지 하게되야 서로苦悩을 알게되엿음으로 安君까지도 「그것참 딱한일도 만습니다」 하며 뜻밧기 걱정을새로 하야주게되엿읍니다

이와같은 걱정으로서 安君과가치 同行하게 됨으로서로 얼굴을 쳐어다보며 對策을 생각하는 동안에 車는

벌서 靖流里를 지나서 東豆川에 다다랏음니다 車窓밖으로 내아다보니 夜色이 캄々하게 인누리를 싸고잇음니다

◇ ◇

그런데 나는 여러가지로 생각하든 끄테 妙策을하나 發見하엿읍니다 그妙策이란 다름이아니라 安君과가티 釋王寺를 들려서 가겟다는 생각이엿읍니다 釋王寺만 드러가면 萬事가 다 解決되는 깨닭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번거름의 紀行에 對하야 旅費不足의 넉두리를 몬저말하는것은 나의體面을보다든지 또는 其他의엇던분의面目을 보아서라도 쓰지안코저한바이나 一個月以上의時日이 걸니엿든 수番의 나의旅行은 처음부터 끗까지 徹頭徹尾하게 苦痛이며 困難이엿는故로 처음부터 그러한 苦難이잇은것은 끗까지 苦難이 잇으리라는 暗示가 아니엿든가하는 생각으로 讀者의興味를 도읍기 爲하야 揷話로서 쓰는것임니다

七月十一日 얼마동안을 잣든지 자다가 깨서보니 안개비가 풀々날리는 새벽에 汽車는 三防驛을 지내갑니다 이곳은 每年여름마다 發起寺出張布敎所나 다름업시 내가와서 或은一週日동안 或은十餘日동안묵고 布敎하고傳道하든곳이라새삼스럽게 束縛이 깁허집니다 올여름에도 時日의 餘裕만 잇으면 들려보리라하고 생각하면서 지내오는동안에 時針은 벌서 午前五時三十分을 가르칩니다 우리一行은 車가머무는대로下車하니 이곳이 곳釋王寺驛임니다

◇ ◇

安君과나와는 돈은업스면서도 호사스럽게 乘合自動車를타고 雪峰山을 向하야 松林가운데로 드러갑니다 鬱々若々한 釋王寺洞口의 松林은 내가본지 六七年前이나 只今이나 다름업시 茂盛하더이다 萬春閣을 얼는 지내 斷俗門과 不二門과 普濟門을지내서 下車한뒤에 雪城東樓와 映月樓를 지나서 佛敎專門講院인 眞敬堂으로 드러스니 마침大衆諸位가朝供養에 드신때이라 鉢盂소리만 날뿐임니다 나는不問曲直하고 籌室房으로 드러가서 小時間을 기다리니 金日宇和尙이 드러오십니다 그때서오래간만에 邂逅하야 旧懷를 펴고 반가운이얘기를 건넛음니다 마침論問講의時間이 되엿음으로 나는자리를 피하야서 큰방옷죽으로 잇는舊祖室로가서 안게되엿음니다 그런데 안저서돗자하니 老少學人諸位는 講目을 펏숫고 때々이모여안저서 講筵을 빼드니 中講과 發起가 나서서經題를 올프고 科目을 칩니다 그리고 經卷을 펴노흐니 發起의釋講을 각라서 甲論乙駁의論講하는 氣焰이노파지는 모양임니다

이러한 講學속에서 十數年을지나면서 懷慕불에 코얼을 끄슬니며 공부하고 또이와가튼 講學을崇尙하느라고 三四十名의青年과가티 二三年동안을 從事하든 나로서 十

數年을 보지못하다가 이光景을보게되니 옛날의 記憶이 새로워지며 「나도어느시골의寺院으로 들어가서 커러한 俊才와가티講學이나 從事하였으면 얼마나 幸福이되랴?」하는 생각이 禁할수업시 소사납니다 다른사람은 講院敎育이 完全한것이니 不完全한것이니하고 是非論하는者가 만호나 그래도 佛敎命을 이여갈者는 還佛場인 講堂에서 나온사람밧게 업다고나는 생각합니다 釋王寺에講堂이 잇음은 咸南佛敎界의 曙光인同時에 朝鮮佛敎의새밤이려고 볼수가잇읍니다

◇ ◇

나는講堂에잇는 어느스님의 案內로 護持門泛鐘閣、興福樓、慕如堂、大雄殿、冥府殿、海藏殿、八相殿、龍飛樓、羅漢閣、仁智寮、羅漢殿을 巡禮하고 宗務所로 들어가서 住持李幻海禪師를 謁見하였읍니다 禪師는初面이지마는厚德宗師로뵈오지려이다 그리고 三驛스님을 뵈온뒤에 事情을 말하얏읍니다 그리한즉 두말슴도 아니하고 그리하라고하며 幾許金을 貸借하야줍니다 그래서 나는 이곳에서 勇氣를 어더가지고 이날의午後三時北行車의時間을 마추어서 다시洞口로 나려옵니다 舊住持張河應禪師를 뵈오려하였으나 원청강 時間이 업슴으로 除綾하고 바로驛으로 나와서 會寧車를타고 汽車가 가는대로 北으로〈定處업시갑니다 單騎單身으로 머리속에 千萬가지의空想을 그리면서 元山과 龍潭을 얼는지내서 咸興을當到하였음니다 이곳에는 布敎界에 元老인 金寶輪大敎師가기신곳임니다 그래서 下車하야 뵈옵고 가려고까지하였음니다 그러나 사람은 信用으로 사는것인데 鐘城서 日字까지 定해노코 오라고 하였는데 엇지그러케한만이하랴하고 바로 떠났읍니다 그러나 那終에 알고보니 이날이 和尙에게 涅槃하시든 날임니다 만일 내가나려서 咸興敎堂에 들렉도면 師를 弔哭이라도하고 茶毘法門이라도 하여드리엿을터인데 師와나와의 因緣이 이러트록 갓가우면서도 遠若됨은 나와千秋의遺感을 짓고 마랏읍니다

◇ ◇

그러나 이것저것을 모르는나는 咸興도 回路에 들니려하고 바로 西湖津과 西湖의 海上風景을바라보며 지내감니다 이곳은 마치 下關서 東京으로들어가는 東海道線과가치 海邊을끼고 나려가는곳이라 옛날에 東遊하든 記憶을 새로히 助發식혀주더이다 三湖、蔚津、景浦 雲浦의 모든景致를車窓으로 바라보는동안에 어둠의張幕은소리업시 나려서 東北의바다를 감추고 밤니다 나는 無聊히 안젓다가睡魔에 征服되여 자버리고 마랏읍니다

七月十二日 얼마동안을자다가 깨나여보니 北靑과 城津을 어느틈에 지내고 朱乙溫泉에 到着하였음니다 그래서 이곳을 지내며 鏡城과 羅南의佛敎狀況을 비롯에 드른대로 그리면서 생각하는 동안에 어느듯汽車는 輪

城과淸津과古茂山을 지내서 會寧에 當到하야 下車케되엿읍니다 그러나 基點이 鐘城인만치 會寧서머무를수도 업는바라 바로 圖門江岸行의輕便車를가라타고 鐘城으로 나려갑니다 그런데 이곳은國境의最終端인地域이라 豆滿江을 끼고서 限업시 엇던山谷의 험진곳을向하야 밋그러지는듯 다라나기를마지아니합니다 江건너는 北間島땅이요 江이쫑은朝鮮內地라오직江물만바라보고갈뿐임니다車內에는 支那服을 입은中國사람들이 만히올나서 이얘기를하는데 朝鮮말이 썩流暢합니다 그래서 어느사람의게 무러본즉 그네가 中國人이아니라 朝鮮양반들인데 間島에가서 中國政府에入籍하고 商業을 經營하는 사람들이라하며 그네들의中國語는 朝鮮말보다도 더流暢하게한다고합니다

◇ ◇

그런데 이곳의輕便車안에는 武藏한巡査들이 쉴새업시 車室을 徘徊하면서 눈알을 굴리며도라단임니다 그러다가 自己눈에 조구만치라도 疑常한點만 잇서보히는사람이면不問曲直하고 身體를 搜索합니다 내눈알해서도 몃사람이나 몸調査를 當하엿는지 모름니다 果然國境인만치 殺風景인것갓읍니다 車는上三峰驛을 當到하엿읍니다 이곳에는 圖門鐵橋라는 國際鐵橋가잇서서 北間島龍井市까지 車가닥드리가는곳임니다 이곳에서 나는下車하야 다시擔綱傳行車를타고 午後三時半쯤되여서 鐘城驛에서 下車하엿음니다 鐘城에서 下車만하면 鐘城佛敎婦人會의일을 後援하는 咸北佛敎支社長인 張用尙君이 나와주리라고 미듯더니 下車하야 가지고 아모리 살피여 보와도 그럴듯한사람이 보히지를 안슴니다 그래서 張君이留宿한다는 元山旅館을 차저간즉 主人되는 李根道라하는분이 親切하게 마저주면서도 張君이 집로간것이라 하며 드리안지라고만합니다 그래서 어느집로 간느냐고한즉이곳에서振十里되는谷泉寺라는데로 갓는지모른다고 합니다 何如間이사람을 만나보야만 講座를 열는지 말는지하며 따라서 婦人會에잇는분을 차저보겟는故로 사람을어더가지고五峰山이란山을넘어서 谷泉寺라는데를 차저갓음니다 그러나 엇던婦人이나와서인사하드니 이곳도아니왓다하며 드리안지라고만합니다 그런데 마침 이집에는 佛供을드리려온 婦人네가 二三十名이나 모혀서 致誠을 드리는데 힌마지(白飯)노란마지(黃飯)白黃을相半으로한 마지를 佛器에 담아가지고 왓다갓다합니다 그리고 一心의誠力을다하야 新願을합니다 寺院의外樣은 荒涼하야보히나 佛供단골은 一年에 千餘名갓갑게 온다고합니다

◇ ◇

나는 이집에 모여든 信女들의 信心을 보고「寒北國境에도 이와가티 佛敎를 信仰하는 善男 善女가 만은가」하고 대체부터님의功德은 虛空같으며바다갓기도하다하고 놋기기를 마지아니하엿음니다 그런데 이집의沿革

을 드리불것가트면 本來在家僧들이 드리엇든분이라어느 때부터建築되엿는지아지못한다고하며 그때에잇든 在家僧들은 只今도 커옷깔에 산다고하는데 가르치는곳을 치어다보니山기슭그로 바라보히는 卒和스러운 村落임니다 이분에서 中食晩夕食을마치고 住持되는 金克瀨和尙의게 사정하야 張君을 찾기도 하엿으나 特히張君은 金和尙의게 徒弟되는 분인까닭임니다 金和尙과가티 鐵城邑에 나려와서 날이어듭기까지 四處로 張君을 차저단엿으나그 림자도볼수업는지라 차츰질이 업습니다 그래서 엇지할 수업시 鐵城서 얼마되지안는 甕岩寺라는데로 가서잣음니다

七月十三日 甕岩寺라는데는 아주조고만한 庵子분인데 生計도 뭐어려운것 갓읍니다 그러나當寺의住持되는 金和尙은 靑年住持로 마음이如干親切한분이안임니다 그런데 甕岩寺서 바라보면 鐵城一邑이 眼下에 나려다보히고 豆滿江건너 間島땅이 바로 눈앞헤열녀잇읍니다 朝供을마치고 庭前에 나섯노라니 뢰압해서 멀리 보히는 큰길까에 洋服입은 靑年紳士한사람이 빠름거름으로 뛰여올라옵니다 이는못지아니하여도 張君임니다 나는初面이지만서도반가운생각으로 빨리나려가서 손을잡은즉 넘어도 未安하다하며 謝過합니다 그리고 自己는 三峰佛敎婦人會에 交涉하려갓다오느라고느젓다합니다

◇ ◇

七月十六日 이날아침에는 鐵城佛敎婦人會員과 三峰婦女會員을作別하고 北間島龍井村으로 드리갓읍니다 그래서 光明女學校에잇는 張英俊君을邂逅하야 龍井의市街를 一巡하고龍井公園과海蘭江과 碧照寺까지 巡覽한後 夕에는 大覺敎堂에서「大覺의意義」라는 題로 講演한바 會員만 모왓다고 하는데 聽衆이 二百名以上이나 되는것 깃탯읍니다 龍井滯在時에는 張君과成氏와金東權氏及李氏의도움이 만앗읍니다

七月七日 이날은 龍井서 떠나서 會寧으로드리갓읍니다 會寧驛에 나린즉 白泉寺住持全東植氏와 會寧敎堂의 李世用氏가 여러婦人信徒와가티 나와서 迎接하야줍니다 夕飯을 마친뒤에 講演場所로 引導함으로 八九時間을휘돌려오름이지마는 豫定이豫定인故로「佛敎의內的生命觀」이라는題로 講演을 하엿음니다 聽衆은 아마三百名以上이나 滿過한것깃읍니다

七月十八日 이날은 淸津으로 가야만할 日字인데 會寧佛敎婦人會에서 期於히 說法會를도 더한번 여러주고 가라고 懇請함으로 乾鳳寺出張布敎堂으로 모혀서 地藏說法會를여럿음니다 事實이여와 가티되故로淸津과羅南에 기신분의게는 如干한 未安을 드리지안케되엿음니다 그래서날자가임의틀녀진故로하로밧비白頭山아나 올라가자하야

서不得已하야 龍井까지가기로하얏음니다

◇ ◇

七月十六日 이날아침에는 鐵城佛敎婦人會員과 三峰婦女會員을作別하고 北間島龍井村으로 드리갓읍니다 그래서 光明女學校에잇는 張英俊君을邂逅하야 龍井의市街를 一巡하고龍井公園과海蘭江과 碧照寺까지 巡覽한後 夕에는 大覺敎堂에서「大覺의意義」라는 題로 講演한바 會員만 모왓다고 하는데 聽衆이 二百名以上이나 되는것 깃탯읍니다 龍井滯在時에는 張君과成氏와金東權氏及李氏의도움이 만앗읍니다

七月七日 이날은 龍井서 떠나서 會寧으로드리갓읍니다 會寧驛에 나린즉 白泉寺住持全東植氏와 會寧敎堂의 李世用氏가 여러婦人信徒와가티 나와서 迎接하야줍니다 夕飯을 마친뒤에 講演場所로 引導함으로 八九時間을휘돌려오름이지마는 豫定이豫定인故로「佛敎의內的生命觀」이라는題로 講演을 하엿음니다 聽衆은 아마三百名以上이나 滿過한것깃읍니다

七月十八日 이날은 淸津으로 가야만할 日字인데 會寧佛敎婦人會에서 期於히 說法會를도 더한번 여러주고 가라고 懇請함으로 乾鳳寺出張布敎堂으로 모혀서 地藏說法會를여럿음니다 事實이여와 가티되故로淸津과羅南에 기신분의게는 如干한 未安을 드리지안케되엿음니다 그래서날자가임의틀녀진故로하로밧비白頭山아나 올라가자하야

十九日에는三人一行이 雞林行車를타고 北鮮炭鑛을 求景하고 豆滿江沿岸을끼고도라서甫乙下山城을 차저드리 圓覺寺에서 一宿하엿음니다 그리고 二十日에 圓覺寺를 떠나서 徒步로八十里를거러서 茂山豐溪面 松鶴洞에서宿泊하고二十一日은 松鶴洞서떠나서 徒步로 泰山峻嶺을 두세이나 넘어서八十里를 經過하야 茂山邑으로 드리왓음니다

◇ ◇

茂山邑을 드리오니 마침 水月庵住持로 잇는李昌治和尙이通知에依하야迎接하야주고 따라서 茂山佛敎婦人會의 信徒어른이 終釋不絕하게 차저줍니다

七月二十二日 茂山佛敎會主催로 公立普通學校를비 려서「佛敎의人生觀」이라는 題로 講演을한바 이곳에서는 雨天임도 不拘하고 聽衆이 二百名以上이나 모혀주엇음니다 二十三日부터는 茂山守備隊와가치 白頭山을 登山하게되엿음으로 八月一日까지는 벙어리노릇을 아나할수가 업시 되엿음니다 白頭山行記는 따로쓰기로 하고 이에는省略합니다 여러先輩와信徒어른네의厚誼미레서 無事히 白頭山中에서 十餘日을 보내고 七月三十一日에白頭山洞口인農事洞에서자고 八月一日에 國境最終都會인 三長市를當到하니 水月庵住持和尙과 白雲寺잇는朴性彦師가 迎接하야줍니다 그리고 三長도 三百餘戶나되는 山中都市

四十八頁에繼續